

IBM, 오라클 선두 경쟁속에 15% 성장

IBM, 전체 시장점유율 1위, 오라클 유닉스 및 NT분야서 1위

'98년 세계 DBMS시장은 기업들이 Y2K 해결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규모가 71억 달러로 97년 대비 15%가 증가했다고 시장 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는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 동안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줄곧 수위를 고수해온 오라클은 시장점유율 29.3%로 2위로 하락한 반면 IBM은 S/390과 AS/400 시스템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32.3%로 1위로 상승했다.

데이터퀘스트는 오라클이 유닉스와 윈도우 NT 기반 DBMS시장에서는 각각 60.9%와 46.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상용 DBMS시장에서는 선두를 유지했지만 IBM의 메인프레임용 DBMS 매출 증가로 인해 선두 자리를 빼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말 'SQL서버 7.0'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점유율이 9.9%에서 10.2%로 0.3% 상승해 3위를 유지했다. 이밖에 인포믹스가

4.8%에서 4.4%로, 사이베이스는 4.5%에서 3.5%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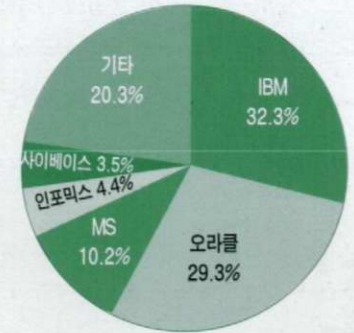
한편 IBM이 오라클을 제치고 DB 시장의 선두에 나섰다는 발표에 따라 오라클 측은 "어느 제품이나 적용할 수 있는 상용 DBMS인 유닉스 및 NT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업체간 선두 경쟁과는 관계없이 지난해 DBMS시장의 15% 성장은 기존 DB 수요 포화론을 잠식시킨 것으로 DB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업체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윈도우 NT 기반 DBMS 시장에서는 오라클이 '97년에 비해 55%나 성장한 5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해 12%의 성장에 그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무색케 했다. 오라클 측은 "이번 NT 시장에서의 약진은 윈도우 NT 솔루션의 사용 용이성, 저렴한

총 소요 비용(TCO)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확산과 함께 오라클의 뛰어난 확장성, 안정성, 유용성이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업체에게 인식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닉스용 DBMS 시장에서 오라클이 60.9%의 시



(그림) '98 세계 DBMS 업체별 신규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메인프레임 포함)

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자리를 지켰고, 인포믹스는 13.2%로 2위를 차지했으며, IBM과 사이베이스가 각각 7.3%, 7.1%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터퀘스트는 지난해 유닉스용 RDBMS 시장이 예상보다 8%나 증가해 당분간 유닉스용 RDBMS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킨 반면, 윈도우 NT용 DBMS 시장은 윈도우 2000의 발표 지연과 리눅스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데이터퀘스트는 2003년까지 전체 DBMS 시장 규모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전자상 거래, 데이터 웨어하우징, 모빌 컴퓨팅 등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메인프레임 분야에서의 IBM과 NT분야에서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민식 기자>

<표> 1998년 각 업체의 유닉스/NT 플랫폼별 매출 현황 (백만달러)

구분	1998 유닉스		1998 NT	
	매출(\$)	시장점유율	매출(\$)	시장점유율
오라클	1,340	60.9%	552	46.1%
IBM	160	7.3%	116	9.7%
MS	-	-	356	29.7%
사이베이스	156	7.1%	36	3.0%
인포믹스	290	13.2%	-	-
기타	254	11.5%	140	11.5%
총 계	22억 달러	100%	12억 달러	100%